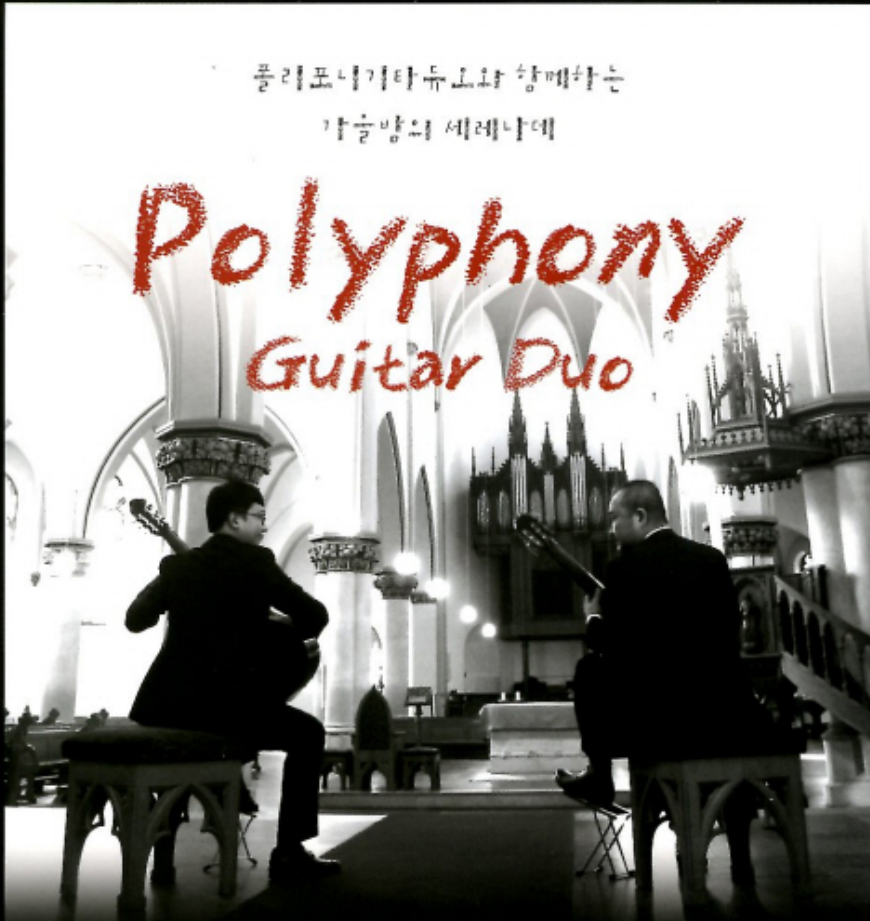


폴리포니기타듀오와 함께하는  
각슬랑의 세레나데

# Polyphony Guitar Du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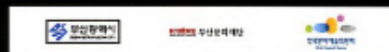


2013. 10. 20 (일) 저녁 7시  
해운대문화회관 대강당 (해운솔)

일반 안원 (초중고 5천원)

문의 : 010-5198-0074

후원



본 사업공인명세서에 의하면 2013년 후원회기간 저작권저작물유상권행사임에 일부지당유료 시행됩니다.



## POLYPHONY GUITAR DUO

## 폴리포니기타듀오



기타리스트 서승완과 김경태가 2005년 결성되었다. Polyphony란 원래는 다성 음악을 뜻하며, 독주로 표현하기 힘든 좀더 입체적인 음악적 표현을 추구하고자 팀의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다. 폴리포니기타듀오는 클래식, 영화음악, 국악, 남미 무곡 등 음악의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클래식기타 이중주 팀으로 각종 기타페스티벌 및 방송국 초청 연주, 그리고 각종 국제음악제 프린지 참가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통영 윤이상 국제음악제 플린지에 참가해서 Rising Star로 선정된 바 있고, 2011년도에는 그들의 첫 음반 "Song of Polyphony"를 발매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항상 일관성 속에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 때로는 영상과 함께, 때로는 색다른 퍼포먼스와 함께 폴리포니만의 색채감으로 음악을 표현하며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2005 폴리포니기타듀오 결성  
 2008 빅티스소극장공연  
 2008 전주 동명아트홀공연  
 2008 경주현대호텔 초청공연  
 2008 파라다이스호텔 <시와 음악의 밤> 초청공연  
 2009 해운대문화회관 기획초청공연  
 2009, 2010 부산기타페스티벌 초청공연  
 2006- 목요음악회 고정 게스트  
 2009 부산기타페스티벌 초청공연  
 2009 해운대문화회관 주요상선공연  
 2009 새우리음악회 초청공연  
 2010 부산기타페스티벌 초청연주  
 2010 경주현대호텔 초청공연  
 2010 카페 <포레스트> 초청공연  
 2010 <Song of POLYPHONY> 1집 음반발매  
 2011 폴리포니기타듀오연주회 'Song of Polyphony'  
 2011 갤러리 <숨> 초청연주회  
 2011 부산KBS <TV문화속으로>  
 2011 창원KBS <문화산책>  
 2011 문화공간 <밤> 연주회  
 2011 프라미스랜드 초청연주회

2011 부산KBS <무대외적시>  
 2011 부산KBS연말특별생방송 <사랑의연탄나누기> 출연  
 2011 신세계백화점 (셀럽길) 초청연주  
 2011 일본 유쿠하시시 초청연주  
 2012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제 플린지 참가  
 2012 통영 초청연주회 (윤이상 기념공원 메모리움)  
 201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플린지공연  
 2012 부산도시철도예술제 개막연주  
 2012 한국기타협회 정기연주회 초청연주 (예술의 전당)  
 2013 청소년 인문학콘서트 [편지] 초청 연주  
 2013 토마토가 걸리리 초청연주  
 2013 해운대문화회관 [달림] 초청 연주  
 2013 일본 유쿠하시 [시사관] 초청연주  
 2013 벽면이서원 인문학콘서트 초청연주  
 2013 미야우라 미즈오 초청 [한일 교류연주회]  
 2013 독일 부퍼탈 [Herz Jesu성당] 2집 앨범 녹음  
 2013 해운대 달맞이언덕축제 초청연주  
 2013 윤이상기념공원메모리움 이야기가있는 <폴리포니기타듀오연주회>

## Program

Cavatina - 영화<디어헌터> 주제곡 - John Williams

카니발의 아침(Manah De Carnaval) - 영화<흑인 오르페> 주제곡 - Luiz Bonfá

사랑의 로망스 - 영화<금지된 장난> 주제곡 - 스페인 민요

Last Concert - 영화<라스트 콘서트> 주제곡 - Stelvio Cipriani

Over the Rainbow - 영화<오즈의 마법사> 주제곡 - Judy Garland

시네마 천국(Love Theme) - 영화<시네마 천국> 주제곡 - Ennio Morricone

The Whole Nine Yards - 영화<냉정과 열정사이> - Ryo Yoshimata (Arr. 박지열)

- 휴식 -

L' Encouragement, op. 34 <위안> - Fernando Sor

3개의 로망스 - F. Kleyjnans

민요주제에의한 3장 - 김명표



### Cavatina - 영화<다이헨리>주제가 - John Williams

존 윌리엄스는 모두 120여개의 영화음악을 작곡했던 영국의 작곡가이다. 그가 작곡한 곡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곡중이 바로 "카타리나"로 1978년작 개봉했던 영화<다이헨리>의 주제가이다. 배드남에게 대항 영웅승리의 순간이 아닌 그 회상과 심회를 심도있게 다루어 낸 곡중이다. 로버트 드 니로, 크리스토퍼 월튼, 에일 스트림슨 1등 배우들의 내면 인격과 감미 묘사가 뛰어난 곡중이다. 영화의 '외사한 운명' 장면은 전경의 절규는 화살살을 비유적으로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감동 바이올린 치기노는 이 장면의 절정 분위기를 풍취이 만든, 절정을 떠나 전영의 사람들을 어릴때 당치놓는가을 새삼 깨우쳐도록 적실한다. 동명의영화,기타의 가장 John Williams가 기타 독주곡으로 편곡하여 널리 알려졌다.

### 카니발의 아침 (Manah De Carnaval) - 영화<흑인 오프제>주제곡 - Luiz Bonfá

그리스 선화 '올레우스'와 그의 아내 레우라티케'에의 오디브론 편 장 클로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Black Orpheus 1959)의 주제가이다. 작곡가 루이스 불로는 브라질 대성의 기타리스트, 작곡가, 향유음악가이며 브라질 음악 세계화의 선두주자 조셉, 스타인 지스 등과 함께 보리노바의 세계적 명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1959년 칸영화제 대상, 아카데미 음악이영화상 수상곡 <흑인 오프제> 영화음악을 담당하여 백인 나라 <카니발의 아침>으로 세계적 명성 얻었다. 아름다운 탱고 리우레자네이루를 배경으로 비극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절절담 일화 그려냈다. '카니발의 아침'은 영화 '엘사 (비극수 처형제 주인공)와 삽입곡으로 쓰여 후쿠나라에서도 널리 사랑 받고 있다.

### 사랑의 로망스 - 영화<금색년 장난>주제곡 - 스테판 밀로

영화 <금색년 장난>의 삽입곡으로 후회에게 귀속한 '사랑의 로망스'는 기타의 가장 '나르시스 베케스'의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 로망스의 깊은 스테판의 진요에서 차용된 것으로 기타의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두 대의 기타로 들어보는 로망스는 색다른 감동함과 드래블로 주변의 절가로 좀 더 신선한 느낌을 준다.

### Last Concert - 영화<라스로 폰스트>주제곡 - Sergio Citaristi

영화 <라스로폰스트>의 절정곡 중 하나로 리처드와 스텔라의 끝없는 레이크에서 흘러나오는 곡이다. 후회를 회상하는 아름다운 선율은 비극으로 끝나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오퍼엘이 되어 슬프고도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되는 곡이다.

### Over the Rainbow - 영화<오즈의 마법사>주제가 - Judy Garland

영화 <오즈의 마법사> OST중 가장 사랑받고 있는 곡이며 주연곡 '도토리'가 오즈의 나라에 온 후 처음으로 카키라와 마법사를 찾아가는 길에해야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다. 현존은 흑백으로 환상적 나라는 일화에 나오는 이 영화처럼 무지개 너머 있는 우리들의 같은 흑백일화 걸러있어 생각하게 된다.

### 시네마 천국 (Love Theme) - 영화<시네마 천국>주제가 - Ennio Morricone

영화 <시네마천국> OST중 '사랑의 테마'는 세계적인 영화음악의 대가 <엔리코 모리코네>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영화의 애환함과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동시에 주는 절곡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이용주로 편곡한 이 곡은 느림과 격정을 두 대의 기타가 주고 받는 형식으로 연주되며 새롭게 해석되는 연주와 화음을 느낄 수 있다.

### The Whole Nine Yards - 영화<남경과 일장사기> - Ryo Yoshimata (Arr. 박지영)

영화 <남경과 일장사기>의 삽입곡 중 하나이며 원곡은 피아노와 현악이 같이 연주기 된다. 두 대의 기타는 서로 온전 친국, 색다른 화음과 인용을 남음으로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시나인 사정에 대한 기억과 추억, 아름다운 것들을 간격하고 있는 비음을 표현한다. 이곡은 클래식기타등으로 취해서 작곡가 박지영님의 편곡을 하였다.

### L'Encouragement, op.34 <위안> - Fernando 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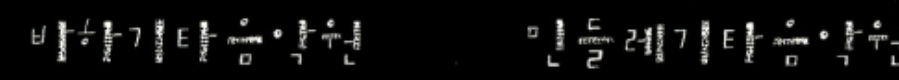
페르난도 소르는 스페인 태생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이다. 그는 기타의 해보체라라고 불려를 정교도 수많은 기타 명곡을 작곡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그의 작품은 기타 애호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연주 될 <위안>은 기타 이중주의 대표 곡 중 하나이며 두 연주자간 절묘한 호흡이 지극적으로 필요한 난곡이다. 전체는 대이와 연주 그리고 페르나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주해서 연주하게 된다. 절화음과 서정적인 주제가 서로 주고 받으며 비극에 이르러서는 빠른 줄거리 같은 인용을 알린사기 나기며 때로는 슬픔의 정서와 희망의 메시지가 번갈아 나타나며 두 대의 기타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 3개의 로망스 - F. Kiermians

프랜시스코 아를다순 실용곡 연희가 후회하여에 예호가 송을 일하기고 있는 갈레이날의 작품이다. 정경에나온 곡권에서 흥취하여 귀류승리하여에라고이(A, Lagynos)에서 태우고 디아스(A, Dia)의 문하에서도 공부 했다.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그는 22개 곡의 음악부에서 작곡부에서 우승(1회 또는 2회)을 차지 한 바 있다. 3개의 로망스는 갈레이날의 100번째 작품으로 보렐리 이중주의 수작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풍부한 화성과 예수에 한 번이라는 작곡가의 서정성과 낭만의 극치를 표현하는 곡이다.

### 민요주제에 의한 3장 - 김병호

작곡가 김병호는 현대적이고 웅대한 풍채로, 진국대로 대학원을 졸업, 한국기타협회 회장을 역임, 연주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퇴임하고 현재 한국기타협회 교문, 한국작곡가협회 부회장이자, 이 곡은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기타 이중주곡으로서 외국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곡이다. 1악장 : 3부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첫 부분은 작곡가시 농비를 현상제라는 해학적 반러기화 가라이 주제를 이루고 있다. 중간 부분은 "하리방"의 가락을 차원으로로 변칙적이 주제가로 사용되어 장려시키고 있다. 마지막은 다시 처음 부분이 재현되면서 끝을 맺는다. 전체적으로 화성으로 장단과 4도, 5도, 6도 화성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악장 : "남이 전야"의 가락을 주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 절곡에서 인민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3악장으로 전개하고 있다. 4도, 5도 화성과 화음적 화성연형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복합성질적이며, 3악장 : "세이방"의 주제를 주제로 하여 변형시키고 있으며, 가사운 일종의 코드화기를 적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코르타장안이 변형되어, A+B+C+Cody로 되어있는 3부형식이다. 마지막 부분은 이 곡의 클라이막스로서 절곡은 다우리움속 호탕하며 거침없이 풀음으로써 끝을 맺는다.



원장 서승환      원장 김정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98번지 엔지상가 21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 223-82번지 3층  
051-702-1589 / 010-5198-0074      051-513-0030 / 010-5489-2913